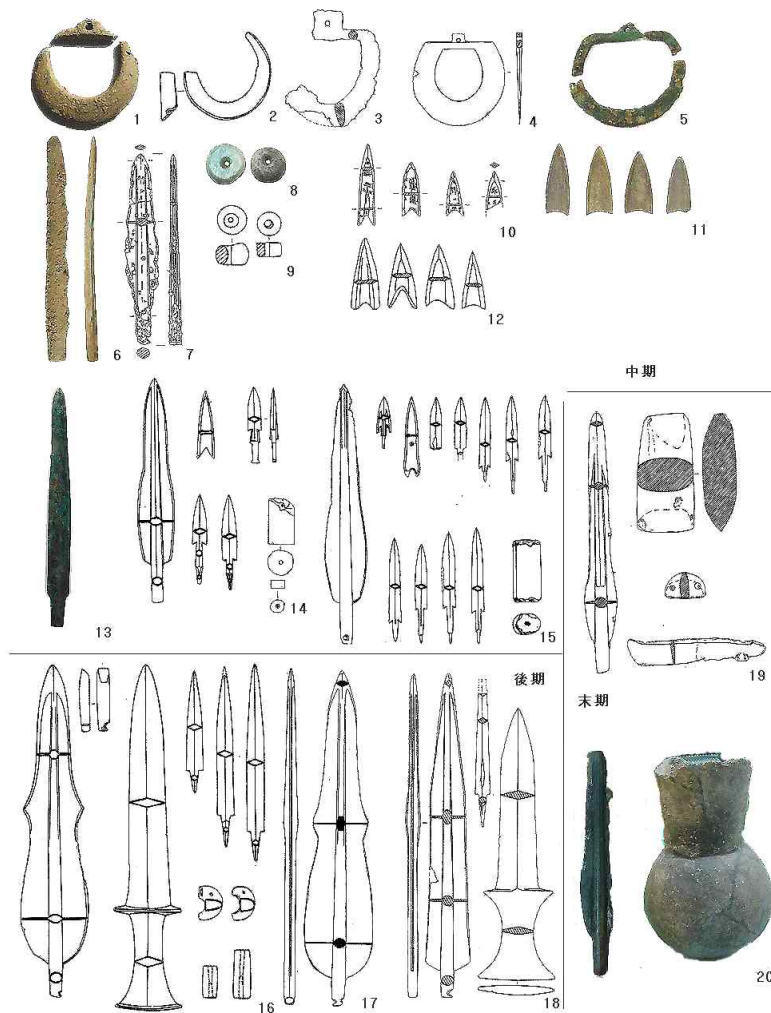


청동기시대의 동검 이야기

이양수 | 103호 청동기 · 고조선실 | 18:00~18:30

요령식동검은 비파형동검, 고조선식동검, 곡인주척단검, 동북식동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분포는 서로 내몽고, 동으로 연해주, 북으로 길림, 남으로 일본에 이릅니다. 그 중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동검은 크게 세 형식으로 구분 가능한데 I 식은 요동지역-이형요령식동검(중기), II 식은 요서지역-전형요령식동검(후기), III 식은 한국식동검화 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양상-변형요령식동검(말기)으로 생각됩니다. I 식은 주로 삼각만입촉, 이단경식석촉, II · III 식은 장신촉과 동반하여 출토되며 시기적인 차이도 인정됩니다. 결국 요령식동검은 동북아시아 지배자의 표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 1·6·8·11. 광주 역동 2·3·9·12. 崗上
4. 撫順 5. 김해 연지
7·10. 대전 비래동
13. 춘천 우두동 14. 신평 선암리 15. 배천 대아리 16. 부여 송국리 17. 여수 적량동 18. 창원 진동리 19. 개천 용흥동 20. 김천 문당동



제63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5월 1일)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자리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박경은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첫인상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인양 어둡고 좁은 터널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 사방으로 심연의 우주가 펼쳐진 듯한 고요한 공간에 두둥실 떠있는 존재들이 마치 행성 같습니다. 여기저기 한줄기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거칠거칠한 화강암의 표면에서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확고한 누군가의 모습이 강한 아우라를 뿜으며 살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돌과 하나된 생명을 목도하는 것 같은 신기함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감출 수 없는 기쁨에 찬 얼굴이, 또 두건을 뒤집어쓰고 평온함에 잠겨든 얼굴, 그리고 무거운 고개를 떨구고 무언가에 몰입한 얼굴들 그 하나하나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가슴을 두드립니다.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특별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나한 석조상들은 ‘반질하고 단단한 거울처럼 견고한 내면의 고요함 속에’ 있고, ‘떠오르는 달덩이와 같은 원만하고 빛나는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며, ‘따뜻한 햇살같은 안온한 평화 속에’ 있고,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진지한 몰입 속에’ 있습니다.

현대미술과 문화재의 본격 콜라보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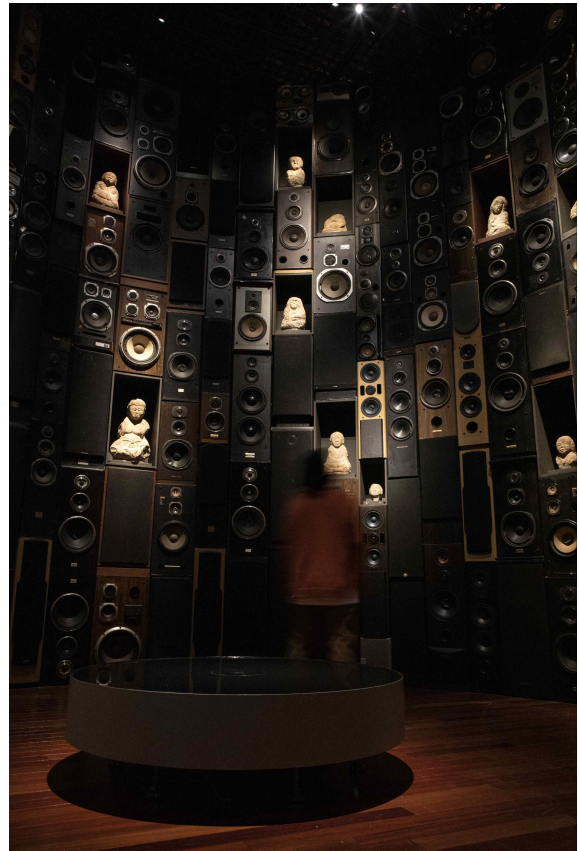
불교佛敎의 진리를 깨우친 성자 ‘나한羅漢’이 일상 속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전을 관람객의 사랑과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018년의 전시로 선정하여, 그 서울전을 더욱 새로워진 연출로 선보입니다. 전시 1부는 “성속聖俗을 넘나드는 나한의 얼굴들”이라는 큰 주제 아래 국립춘천박물관의 전시의 개관概觀을 유지했고, 2부 전시는 “일상 속 성찰의 나한”이라는 큰 주제 아래 종교 스피커와 창령사蒼嶺寺 나한상羅漢像으로 구성한 ‘도시 일상 속 성찰하는 나

한'을 새롭게 연출했습니다.


1부 전시 공간은 전시실 바닥을 옛 벽돌로 채우고 그 위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좌대를 세워서 창령사 나한상 32구를 배치하여 연출하는 한편, 2부 전시 공간은 스피커 700여 개를 탐처럼 쌓아올려 그 사이에 나한상 29구를 함께 구성하여 도시 빌딩숲 속에서 성찰하는 나한을 형상화하였습니다. 1부 주제인 ‘자연 속의 나한’과 2부 주제인 ‘도시 속의 나한’의 주제가 대조적이면서도 ‘자아 성찰’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연출함으로써 도시의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아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국립박물관과 설치작가 김승영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거쳐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협업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적 문화컨텐츠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1. 수행하는 나한과 가사를 두른 나한, 고려말 조선초,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 출토, 높이 37.9cm(왼쪽),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도2.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전시전경 (작품설치 김승영)



‘창령사蒼嶺寺’라는 사찰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은 2001년 5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서 주민이 그 일부를 발견하면서 오백여 년 잠들어있던 나한상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가 2001~2002년에 정식으로 발굴조사하면서 완형 64점을 포함하여 317점의 나한상과 불보살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터에서는 중국 송나라의 동전 승녕중보崇寧重寶와 고려청자 등이 함께 출토되어 창령사가 고려 12세기 무렵에 세워졌던 사찰임을 확인하였고, "창령사蒼嶺寺" 글자가 새겨진 기와를 통해 절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창령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년, 1530년)과 『동여비고東輿備考』(1682년경) 등의 기록과 발굴품이 전하여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된 나한상들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복원작업을 거쳐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과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원시인原始人과 선사인先史人

황보창서 | 101호 구석기실 | 19:00~19:30

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흔하다 보니 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자원입니다. 오래된 것으로 고인류의 석기가 있고, 지금은 다양한 자재로 가공하여 여러 모로 사용합니다. 돌은 이처럼 오랜 동안 사람들의 주요한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석기시대는 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무나 뼈 등 다른 물성의 도구도 있었겠지만 돌로 만들어진 도구만이 주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직·간접 타격, 누르는 힘 등을 다양하게 구사해 커다란 주먹도끼에서 작은 돌날까지 다양한 도구를 제작·사용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이 도구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먹도끼의 대칭, 찌개의 날과 조합적인 작은 돌날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의 바탕이 일찍이 구석기시대에 그 뿌리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돌을 소재로 도구를 만들어 쓰던 옛 사람들을 우리는 원시인原始人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풀면 <근원이 되는 첫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현생 인류 이전의 고대 인류>,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의 야만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시인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야만적인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면에서 현대인들과는 다른 존재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차별이 끼어들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5G시대에 사는 우리지만 거친 환경에 놓인다면 옛 사람들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상 가장 멀리, 가장 오랜 정점에 서있지만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수평적인 시간으로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차별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구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선사시대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에 관한 문헌자료文獻史料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시대> 즉 문자기록이 남아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대체로 그 시기를 원시시대로, 당시 살던 사람들을 원시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이든 문화사적이든 그 근원을 찾아가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다른 시간에 위치하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음으로 차별적 의미를 제거한 선사인先史人으로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3) 계몽기의 서화가들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신문이나 잡지, 소설, 전기, 교과서와 같은 대중을 상대로 한 계몽서적들이 대한제국기에 활발히 제작되었습니다. 서양식 인쇄기술에 기반한 대중 서적의 출판은 새로운 신문물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서화가들은 각종 인쇄매체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대중 계몽가로서 새로운 자의식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은 <만세보>(1906), <대한자강회월보>(1907)를 발행하여 대중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은 대한자강회의 회원으로써 대한자강회월보에 민충정공의 혈족도를 묘사한 그림을 삽화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채(玄采, 1856-1925)가 발행한 아동 교과서 <유년필독>의 제자題字를 맡아 신문물로써 인쇄매체에 선구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중식은 이즈음 고희동(高義東, 1886-1965)과 이도영(李道榮, 1884-1933)이라는 뛰어난 제자를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관립범어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던 고희동 대한제국기 궁내부 관료로 일하면서 안중식으로부터 서화를 배우고, 1909년 도쿄미술학교 양화과에 유학해 1915년에 졸업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가 되었습니다. 고희동은 안중식과 함께 잡지 <청춘>의 표지와 삽화를 맡아 인쇄매체를 통한 대중 계몽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도영은 아버지 이인승과 스승 안중식의 영향으로 국민교육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등 애국계몽단체에서 활동하며 교과서 삽

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대한협회가 발행하는 신문 <대한민보>에는 친일파를 비판하고 세태를 풍자하는 시사 만평화가 자주 실렸는데, 이도영은 만화로 사회상과 정치상을 날카롭게 풍자했습니다. 오세창과 안중식, 그들의 영향 아래 있던 젊은 서화가들이 수용한 새로운 창작 방식은 대중 계몽가로서 근대 서화가들의 존재와 역할을 보여줍니다.



도1. 오세창 발행 <만세보>
1906



도2. 이도영 <대한민보>
만평(1909.6.5)